

●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습관! 2%를 바꾸면 발명이 보인다



김 병 오
한산중학교 교사
(ajukbo@hanmail.net)

우리 발명하는 사람들 모두 새해에 이런 약속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웃기 힘든 날이 많아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내가 먼저 웃고,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상대의 불편을 살펴 사랑해 주고, 쉽게 친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인사하여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약속을 하자. 세상의 모든 일은 습관에서 시작되고, 실천으로 끝을 맺어 결실을 얻는 것이다.

습관이란 알게 모르게 오랜 세월이 걸쳐서 축적되어 온 것이어서 쉽사리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습관을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의 밝은 면과 아울러 어두운 면을 동시에 살펴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는 꼭 바뀌어야 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만 이제 그 버릇, 즉 지금까지 가지고 생활해온 습관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올해에는 자신을 바꾸려는 작은 목표, 2%만이라도 변화하여 출발해보자. 독특한 광고로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2%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한다. 즉 부족한 2%는 채우고 넘치는 2%는 버려서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만들어 가려는 의미이다. 2%라는 것이 사소한 수치같이 생각되지만 우리는 이 사소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작은 2%였지만 결국 끝까지 실천하여 인생을 100%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자, 이제 발명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습관 중에서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습관 2%만이라도 바꿔보자!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흡연가가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나, 애주가 술을 끊는 일, 그리고 비만한 사람이 운동을 한다는 것 등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작심삼일로 끝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럼 발명하는 습관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첫째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가령 지난 연말에 느낀 자신의 문제를 에너지로 삼는다거나,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이 어떤 상태일까, 또는 내 분야에서 나는 과연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서 고정관념을 깨는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기록하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처음부터 수첩이나 기록장을 들고 조급한 마음으로 덤벼 곧 포기하는 결과보다는 달력이나, 포스트잇, 그리고 벽지 등 우선 기록하기 쉬운 곳 아무데나 기록하는 습관을 키워 서서히 적응해 가는 여유가 필요하다.

셋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흥미 있는 일을 할 때 스스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수월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즉 신념에 동기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는 모습과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태풍과 같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며, 주변에서 한다고 나도 함께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절실함 없이 외부적인 동기에서 뭔가를 시도해봤자 작심삼일로 그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내가 바꿔야 하는 습관은 100%이겠지만 올해의 목표인 2%를 바꾸는데 성공한다면 결국 100%를 바꾸는 초석이 될 것이다.

거울에게 질문하라

거울을 자주 보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보는 거울보다 혼자 있을 때 보는 거울, 또는 무표정이나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보는 거울이 자신을 예뻐지게 한다. 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그 답을 위해 노력 할 때 거울을 향해 의미심장한 질문을 많이 던져 현실의 나보다 바르게 대답하는 거울 속의 나를 더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발명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향해 자신의 습관을 고치는 질문을 수없이 하여야 한다.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3백억원의 예금을 예치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큰 돈을 예금한 그는 그 능력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청원경찰은 은행의 얼굴입니다. 은행의 얼굴이 그렇게 딱딱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표정으로 고객들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는 은행을 내 몸처럼 고객을 내 마음처럼 여기고 일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1백번씩 웃는 연습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수없이 거울과 대화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어 고객들과 영혼이 담긴 서비스를 해주는 '따스한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

거울이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나 실천 의지에 작은 에너지가 되어줄 좌우가 바뀌지 않는 거울도 있다. 이 거울은 일본 미에(三重)현에 사는 발명가 기타무라 겐지씨(北村健爾, 56)가 고안해 실용신안특허를 얻은 것으로, 보통 거울 2개를 직각으로 마주 댄 뒤 그 앞에 투명유리를 끼운 삼각기둥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바르게 비치는 거울'이란 뜻의 '정영경(正映鏡)'이라고 불린다. 이는 사물이 거울 2개에 이중으로 반사되면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삼각기둥의 가운데에 물을 채워 거울 사이 연결부분이 보이지 않게 한 것이 발명의 포인트이다.

만약 물을 넣지 않을 경우 미세하게 만들지 못할 경우 연결부분이 보인다고 하는 이 거울은 기타무라 겐지씨가 8년간 노력 끝에 만들어낸 것으로 여배우가 화장을 하거나 의사상을 입을 때, 그리고 야구선수가 스윙 자세를 점검 할 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이 정영경이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어 2%의 습관을 바꾸게 해줄 것이며, 그를 향해 던진 수없이 많은 질문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하여 3백억원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리라 믿는다. 이제 거울을 향해 큰소리로 질문을 던져보자.

책 속의 이야기

영동한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사랑의 열매 '마쓰이의 실내화'



왕연중

현재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관리지원팀장, '발명교실' 등 발명도서 92권 집필,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 수상,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과기부 장관상, 국무총리 표창, 산업포장 등 수상.

하나의 발명품이 탄생되기까지는 발명가의 피나는 노력과 숭한 실패가 거듭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명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도 이루지 못한 많은 발명품이 영동하게 우연히 탄생되기도 한다. 생활하는 가운데 불편한 점을 느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대발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따뜻한 사랑이 발명품을 낳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랑이 발명의 밑바탕이 된 경우는 아주 많다.

특히 가정주부들의 발명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가족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실내화도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실내화를 디자인하여 발명가 겸 디자이너가 된 사람은 60대 초반의 마쓰이라는 할머니였다. 마쓰이는 디자인과 발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주 평범한 할머니였다.

유난히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다. 마쓰이는 아들 내외가 외출하고 나자 두 살이 겨우 된 손자를 돌보며 큰 집을 지키고 있었다.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손자는 뒤뚱거리는 걸음 때문에 넘어지면서도 온 집안을 돌아다녔다. 두어 걸음 걷다 넘어지고, 일어나서 또 두어 걸음 걷다 넘어지기를 되풀이하는 손자의 귀엽고 대견한 모습을 마쓰이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넘어진 손자가 울기 시작했다.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서 달래던 마쓰이는 손자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를 생각했다.

'걸음이 서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양말 때문에 미끄러워서 자꾸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도 복도에서 계속 미끄러질 듯 아슬아슬했잖아?'

그래서 마쓰이는 어린 손자의 양말을 벗겨 버렸다. 그랬더니 아이는 발이 시린 듯 발가락을 꼬물거렸다.

'발이 너무 차가워서 양말을 벗기면 안 되겠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복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따뜻한 양말이 있다면 좋텐데...'

그러나 그런 양말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마쓰이는 자신의 손자를 위해서 그런 양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마쓰이는 밤늦도록 손자의 양말 바닥에 고무조각을 등글게 잘라 붙여 보았다. 나이가 든 탓인지 부쩍 잠이 없어진 마쓰이는 밤늦도록 손자의 양말을 새로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자신이 만든 새로운 양말을 보면서 손자가 신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여간 흐뭇한 게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마쓰이는 밤새 정성들여 만든 양말을